

불가능한 가능성은 양상주의를 구원할 수 있는가?*

이 재 호 · 김 민 석

【국문요약】 키트 파인의 영향력 있는 논문, *Essence and Modality* (1994) 이후 많은 철학자들은 양상주의, 즉 본질적 속성을 양상성, 특히 데 레(de re) 필연성 개념을 통해서 분석하려는 시도의 전망에 대해서 의심해왔다. 그러나 몇몇 철학자들은 여전히 양상주의의 옹호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필자들은 어떤 종류의 불가능한 가능성 개념을 통해서 양상주의를 키트 파인의 반례들로부터 옹호하려는 두 개의 시도를 검토한다. 필자들은 이런 시도들이 결국 키트 파인의 이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론이 되거나, 아니면 고전적인 양상주의가 포착하려고 했던 본질 개념과는 상당히 다른 본질 개념으로 이끌어지는 문제를 갖는다는 것을 논증한다. 필자들은 따라서, 파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시도들은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시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주요어】 본질, 양상성, 양상주의, 키트 파인, 불가능한 가능성

투고일: 2018.4.11 심사 및 수정 완료일: 2018.6.15 게재확정일: 2018.6.15

* 이 논문은 2016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1. 본질에 관한 (단순한) 양상주의와 파인의 반례

어떠한 대상 x 가 어떤 속성 ϕ 를 본질적으로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종종 이것은, 대상 x 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혹은 자기-동일적이기 위해서는) 속성 ϕ 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¹⁾ 다시 말해, 본질적 속성 ϕ 소유는 대상 x 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조건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많은 철학자들은 본질 개념이 형이상학적 양상 개념(특히, 형이상학적 필연성 개념) 이상의 어떤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해 왔다. 이렇게 형이상학적 본질 개념을 형이상학적 양상 개념으로 단순하게 환원/정의/이해하려는 입장을 ‘단순한 양상주의(앞으로 Simple Modalism(SM)으로 부름)’라 부르겠다. 단순한 양상주의에 따르면 본질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SM: 어떤 속성 ϕ 가 x 에 본질적이다 iff 필연적으로, 만약 x 가 존재한다면, x 는 ϕ 를 갖는다.

키트 파인은 그의 유명한 논문에서 SM에 대해 다음의 반례들을 제시한다:

SINGLETON: 필연적으로, 만약 소크라테스가 존재한다면,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의 원소다. ({소크라테스}의 원소임)

DISTINCT: 필연적으로, 만약 소크라테스가 존재한다면, 소크라테스

1) 브로가드와 살레노는 본질에 대한 이런 이해가 명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런 평가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소간 의심을 갖고 있지만 철학사적 논의는 이 논문의 관심사는 아니다.

는 에펠탑과 구분된다.(에펠탑과 구분됨)

PRIME: 필연적으로, 만약 소크라테스가 존재한다면, 소크라테스는 무한히 많은 소수가 있다는 속성을 갖는다.²⁾ (무한히 많은 소수가 있음)

EXISTENCE: 필연적으로, 만약 소크라테스가 존재한다면, 소크라테스는 존재한다. (존재함)

위 네 가지 사례들은 모두 SM의 오른편-분석항을 만족한다. 따라서 단순한 양상주의에 따르면 우리는 위 네 가지 사례에 등장하는 속성들이 모두 소크라테스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말해야 한다. 하지만 파인에 따르면, 위 네 가지 속성들이 소크라테스의 본질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명백하다. 이를 통해 파인은 SM이 틀렸다고 결론 내린다. 사실 그는 SM의 실패로부터 보다 강한 주장으로 나아간다. 그에 따르면, SM의 실패는 양상주의 일반의 기본 아이디어, 즉 본질 개념이 양상 개념으로 환원 또는 분석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 준다. 대안적으로, 파인은 양상 개념이 본질 개념에 의해서 이해될 것을 주장한다. 현재의 많은 철학자들은 파인의 이러한 결론에 동조적이다.

하지만 몇몇 철학자들은 파인의 결론을 거부한다. 그들에 따르면, 파인의 사례들은 양상주의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양상주의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따라서 적절한 개정만 이루어진다면, 파인의 사례들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그들은 적절한 개정 하에서, 본질 개념을 형이상학적 양상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양상주의의 정

²⁾ Necessarily, if Socrates exist, Socrates is such that there are infinite prime numbers.

신’은 여전히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들을 ‘파인 이후의 양상주의(Post-Finean-Modalism(PFM)s)’라 부르겠다.

PFM은 기존 양상주의에 어떤 종류의 개정을 가하는지에 따라 그 정체성이 달라진다. 우리는 현존하는 PFM들을 개정의 성격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하고자 한다. 첫째 전략은 기존 SM의 분석항에 어떤 종류의 **비-양상적 조건**을 추가하여 파인의 반례들을 해결하려 한다. 이를 ‘비-양상적 전략’이라 부르자. 예컨대, 네이션 와일드먼은 데이빗 루이스의 성긴 속성(sparse property) 개념을 도입하여 다음의 정의를 제공한다³⁾:

Sparse Property Modalism(SPM) 속성 \emptyset 는 x 에 본질적이다. iff
(i) 필연적으로, 만약 x 가 존재한다면, x 는 \emptyset 이다. (ii) \emptyset 는 성긴 속성이다.

앞선 파인의 반례들이 대단히 인위적으로 보이는 속성들에 호소한다는 관찰에서 SPM은 출발한다. 기본적으로 SPM은 기존의 SM에 비-양상적 조건 (ii)를 추가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는 파인 이후의 양상주의자들은 와일드먼에 그치지 않는다. 데이빗 덴비는 내재성 개념을 도입하여 ‘ \emptyset 가 내재적 속성’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하고, 마이클 고먼은 자신의 특징(character)/단순 특성(mere feature) 구분⁴⁾을 도입하여 ‘ \emptyset 가 특징’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한다. 또한 마이클 델라 로카는 ‘ \emptyset 가 비-

3) 와일드먼은 루이스의 성긴 개념을 사용한다고 말하지만, 실상 그가 사용하는 성긴 개념은 엄밀히 말해서 루이스의 것이라기 보다는 웨퍼의 것이다.

4) 고먼의 특징(character)/단순 특성(mere feature) 구분은 다음과 같다: 특성은, 그 특성을 소유하는 대상에 대해 진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류의 속성이다. 단순 특성은 특성이 아닌 속성이다.

사소한 속성' 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한다.⁵⁾ 이들은 모두 비-양상적 개념을 사용하여 조건을 추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양상주의는 비-양상적 전략을 사용하는 PFM들이다.

우리가 '불가능한 가능성 전략'이라 부를 두 번째 전략은, 비-표준적인 양상 개념을 도입하여 파인의 반례들을 해결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을 택하는 현존하는 양상주의자는 대표적으로 파브리스 코레이아와 브로가드이다.⁶⁾ 이들은 모두, 어떤 종류의 (비표준적인) '불가능한 가능성' 개념을 받아들이고, 그 개념에 표준적인 가능성 개념이 수행하던 어떤 역할을 맡기는 것을 통해 본질을 정의한다. 먼저, 파브리스 코레이아는 국지적(local)/총체적(global) 양상성 구분을 도입하여, 본질을 국지적 양상성의 측면에서 정의한다. 코레이아에 따르면, 엄밀한 국지적 가능성은 표준적인 의미에서 불가능성이므로 그는 어떤 의미에서 불가능한 가능성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브로가드는 '고려합직한(entertainable)' 불가능한 가능세계(가능성) 개념을 받아들여, 그것을 기반으로 불가능한 전건을 가진 반사실문(줄여서 '반가능문')을 분석하고, 그 후 어떤 종류의 반사실적 조건문을 SM에 추가함으로써 파인의 공격을 방어한다.⁷⁾

우리는 이 논문에서, 불가능한 가능성 전략을 사용하는 코레이아와 브로가드의 양상주의가 성공의 전망이 어둡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우선 우리는 코레이아의 국지적 양상성 개념이 충분히 해명

5) 텔라 로카는 모든 대상들이 갖는 속성을 사소한 속성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예컨대, '그러하길 무한한 소수가 존재함' 과 같은 속성은 이런 의미에서 사소한 속성이 된다.

6) 앞으로 우리는 '브로가드와 살레노' 를 간단히 '브로가드' 로 부를 것이다.

7) 브로가드에게 있어서 어떤 불가능성은 그것이 반사실적 조건문이 처해진 문맥 하에서 사소하지 않은 논의의 가치가 있는 불가능성일 경우 '고려합직' 하다.

되지 않은 개념이며, 이것이 충분히 해명될 경우 코레이아의 이론은 본질을 원초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파인의 이론과 그 점에서 특별히 다르지 않은 것이 되거나 아니면 파인의 본질에 관한 이론, 그리고 SM이 포착하고자 하는 본질과는 상당히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이론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브로가드의 이론에 따를 경우 본질 개념이 인식적/맥락적 요소들을 본질적으로 포함하게 되어서 SM이 분석하고자 하는 형이상학적 본질 개념과는 상당히 다른 개념이 되며, 따라서 SM을 파인의 비판으로부터 구체해주는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브로가드의 이론 역시, 그의 생각과는 달리, 코레이아적인 국지적 필연성과 총체적 필연성의 구분과 유사한 어떤 구분을 추가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이는, 우리의 생각에 따르면, 브로가드의 이론이 코레이아의 이론이 갖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에 직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훈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불가능한 가능성 전략을 사용하는 양상주의자들은, 그들의 이론이 파인의 이론과 특별히 다를 것 없는 이론이 되어 버려서 파인의 이론과 충돌하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 파인의 이론이 포착하고자 하는 본질과 상당히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이론이 되어서 파인의 이론과 충돌하지 않게 될 위험을 항상 갖는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 되든 불가능한 가능성 전략을 취하는 이론이 파인의 양상주의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양상주의를 진정하게 구체할 전망은 매우 어둡게 된다.

2. 코레이아의 양상주의

코레이아는 본질적 속성을 정의하기 위해 그가 ‘프라이오리언

양상성' 이라 부르는 비-표준적인 양상성 개념을 도입한다. 프라이오리언 양상성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국지적 양상성(local modality)이고, 다른 하나는 총체적 양상성(global modality)이다. 전자는 다시 국지적 가능성과 국지적 필연성으로 나뉘고, 후자는 총체적 가능성과 총체적 필연성으로 나뉜다. 표준적인 양상 개념이 가능 세계를 통해서 의미를 부여 받듯이, 프라이오리언 양상성 또한 가능 세계를 통해서 의미를 부여 받는다. 다른 점은, 코레이아가 국지적 가능세계와 총체적 가능 세계를 구분하는 것을 통해서 비표준적인 의미론을 제안한다는 점이다.

그의 가능 세계 의미론을 살피기 전에 한 가지 예비 사항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는 있음(being)과 존재(existence)를 구분하는 마이논적 정신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우리 현실세계에 페가수스는 존재하지는 않지만(not exist) 있는(is) 것이다. 반면 소크라테스는 현실세계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있다. 어떤 대상이 한 세계에 있는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그 대상은 그 세계의 양화 영역(quantificational domain) 안에 포함된다고 말해진다. 따라서 페가수스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현실 세계의 양화 영역 안에 포함되는 것이다. 반면 소크라테스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현실 세계의 양화 영역 안에 포함된다.

이제 국지적 양상성과 총체적 양상성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총체적 양상성을 살펴보자. 총체적 양상성에 대응되는 총체적 가능 세계(global possible world)는 현실 세계의 양화 영역을 가지는 세계다. 그런데 현실세계의 양화 영역은 가능한 모든 대상들의 집합 S 다. 따라서 각각의 총체적 가능세계들은 가능한 모든 대상들의 집합 S 를 양화 영역으로 갖는 세계다. 그러므로, 모든 총체적 가능세계에서 소크라테스는 있다.⁸⁾ 마찬가지로, 모든 총체적 가능세계에서 페가수스는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다

시피, 있음과 존재는 구분되므로, 모든 총체적 가능세계에서 페가수스 혹은 소크라테스가 있다고 해서, 그들 각각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필연적 존재자가 아니므로, 적어도 어떤 총체적 가능세계에서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총체적 양상 진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G: P가 총체적으로 가능하다 iff P가 어떤 총체적 가능세계에서 참이다.

□G: P가 총체적으로 필연적이다 iff P가 모든 총체적 가능세계에서 참이다.

다음으로 국지적 양상성을 살펴보자. 국지적 양상성에 대응되는 국지적 가능 세계는 가능한 모든 대상들의 집합S의 부분 집합을 자신의 양화 영역으로 갖는 세계다.⁹⁾ 다시 말해, 총체적 가능 세계의 양화 영역의 부분 집합을 양화 영역으로 갖는 세계가 국지적 가능 세계다.¹⁰⁾ 모든 총체적 세계는 동일한 양화 영역S를 가지지만, 서로 다른 두 국지적 세계는 서로 다른 양화 영역을 가질 수 있다.¹¹⁾ 따라서 어떤 국지적 세계의 양화 영역에 포함되는 소크라

8) 따라서 총체적 가능세계들의 양화 영역(집합S)은 불변적(constant)이다.

9) 하지만 S의 임의의 부분집합이 국지적 세계의 양화 영역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S의 부분집합인 소크라테스 단집합의 집합은 국지적 세계의 양화 영역이 될 수 없다.

10) 임의의 집합C는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따라서 어떤 국지적 세계 W_L 은, 가능한 모든 대상의 집합S를 양화 영역으로 갖는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대상을 양화 영역에 포함하는 임의의 국지적 세계 W_L 은 총체적 세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지적 세계와 총체적 세계는 배타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이랬을 때, 총체적 세계들의 집합은 국지적 세계들의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사실 모든 세계들의 집합은 모든 국지적 세계들의 집합이다. 따라서 P가 총체적으로 가능하면 P는 국지적으로 가능하다(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11) 따라서 국지적 가능세계들의 양화 영역(집합S의 부분집합)은 가변적

테스는, 다른 어떤 국지적 가능 세계의 양화 영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적어도 어떤 국지적 가능세계에서, 소크라테스가 있다는 것은 참이 아니다.¹²⁾ 마찬가지로, 페가수스는 현실 세계에는 있지만, 페가수스는 어떤 국지적 가능세계에는 없다.

국지적 양상 진술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피기 전에, 또 한 가지의 예비사항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코레이아가 ‘대상적 내용(objectual content)’ 라 부르는 것에 관련된다. 어떤 문장A의 대상적 내용 |A|이란, 그 문장 안의 각각의 표현이 지시하는 대상들의 집합을 말한다. 문장 A가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스승이다’ 라고 해보자. 그랬을 때, 문장A의 대상적 내용|A|는, 소크

(variable)이다.

12) 어떤 국지적 가능세계의 양화 영역에 소크라테스가 포함되지 않을 때, 그 세계에서 ‘소크라테스가 있다’ 가 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장이 거짓 (‘소크라테스가 없다’)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그 세계에서 ‘소크라테스가 있다’ 는 참도 거짓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 세계의 양화 영역 안에는 소크라테스가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소크라테스’ 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론적 값도 갖지 않는다. ‘소크라테스’ 가 의미론적 값을 갖지 않는다면, ‘소크라테스’ 를 구성요소로 갖는 문장 ‘소크라테스가 있다’ 또한 의미론적 값(진리치)을 갖지 않는다.

한편 ‘소크라테스가 있다’ 가 거짓인 (즉, ‘소크라테스가 없다’ 가 참인) 어떤 국지적 가능세계 W_L 은 존재하는가? 귀류를 위해, 그런 세계 W_L 이 존재한다고 해보자. 먼저 저 문장이 거짓이라면, 저 문장은 의미론적 값(즉, 진리치)을 갖는다. 저 문장이 의미론적 값을 갖는다면, 저 문장의 모든 구성요소는 의미론적 값을 갖는다. 따라서 ‘소크라테스’ 가 의미론적 값(즉, 소크라테스)을 갖게 되고,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W_L 의 양화 영역 안에 포함된다. 달리 말해, 세계 W_L 에 소크라테스는 있다. 그렇다면 W_L 에서 ‘소크라테스가 있다’ 는 참이다. 그러나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있다’ 가 거짓이라고 가정했기에 모순이 도출된다. 따라서 ‘소크라테스가 있다’ 가 거짓인(즉, 소크라테스가 없는) 국지적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소크라테스가 없는 세계’, ‘소크라테스가 양화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세계’ 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할 것인데, 그 표현은 소크라테스에 관한 어떠한 참/거짓도 없는 세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겠다. 이는 어떤 문제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라테스와 플라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이제 국지적 양상 진술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_L: P가 국지적으로 가능하다 iff $|P| \subseteq D_w$ 인 어떤 국지적 가능세계 W에서 P가 참이다.

□_L: P가 국지적으로 필연적이다 iff $|P| \subseteq D_w$ 인 모든 국지적 가능세계 W에서 P가 참이다.

(D_w는 세계W의 양화 영역, ‘⊆’는 부분집합관계를 나타냄.)

그의 양상주의를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하나의 예비사항을 더 살필 필요가 있다. 그것은 그가 ‘프라이오리언 엄밀 함의 (Priorean strict implication)’ (줄여서, PSI)라고 부르는 이항 연산자와 관련된다. PSI는 ‘ \Rightarrow ’으로 표현되고, 이 연산자의 진리조건은 다음과 같다.

PSI \Rightarrow : $A \Rightarrow B$ 가 참이다 iff A가 참인 모든 국지적 세계에서 B가 참이다.

이제 코레이아는 PSI를 통해 본질을 정의한다. 그의 본질 정의는 다음과 같다:

CM: s는 본질적으로 F다 iff $\exists x(x=s) \Rightarrow Fs$

CM의 우편은 다음을 말한다: s가 있는 모든 국지적 세계에서 ‘s가 F를 갖는다’가 참이다. 이제 CM이 파인의 반례를 잘 해결하는지 살펴보자:

DISTINCT 어떤 국지적 세계에는 소크라테스가 있지만 에펠탑은 없고, 따라서 그 세계에서 ‘소크라테스가 에펠탑과 구분된다’는 참이 아니다.¹³⁾ 따라서 CM의 우편은 만족되지 않고, 에펠탑과 구분됨은 소크라테스의 본질이 아니다.

PRIME 소크라테스는 있지만 소수가 없는 어떤 국지적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서 ‘소크라테스는 무한히 소수가 있다는 속성을 갖는다’는 참이 아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가 있는 어떤 세계는 ‘소크라테스는 무한히 많은 소수가 있음이라는 속성을 갖는다’가 참이 아닌 세계다. 따라서 CM의 우편은 만족되지 않고, 무한히 많은 소수가 있음은 소크라테스의 본질이 아니다.

SINGLETON 소크라테스는 있지만 {소크라테스}는 없는 어떤 국지적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서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의 원소다’는 참이 아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가 있는 어떤 세계는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의 원소다’가 참이 아닌 세계다. 따라서 CM의 우편은 만족되지 않고, {소크라테스}의 원소임은 소크라테스의 본질이 아니다.

언뜻 보기에, 그의 양상주의는 과인의 반례를 성공적으로 물리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왜 그런지 보기 위해, 먼저 위의 세 가지 속성들이 본질이 아니게 되는 공통된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위의 세 가지 사례에서의 속성들은 모두 동일한 종류의 사실에 의해 소크라테스의 본질에서 배제된다: 소크라테스가 있지만 에펠탑/소수/{소크라테스}는 없는 어떤 세계가 있다. 이 사실에 의해서 CM의 우편은 만족되지 않고, 따라서 관련 속성들이 소크라테스에 본질적이지 않다는 것이 따라 나오게 된다.

그런데 위의 사실은 모두 국지적 가능세계의 분포에 관련된 사실이다.¹⁴⁾ 코레이아의 국지적 가능세계에 대한 규정을 다시 떠올

13) 거짓도 아니다. 이후의 사례들에도 모두 그러하다.

려보자. 국지적 가능세계는 가능한 모든 대상의 집합S의 부분집합을 양화 영역으로 갖는 세계다. 그러나 코레이아는 S의 임의의 부분집합이 국지적 세계의 양화 영역에 대응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령, 소크라테스를 포함하지 않지만 {소크라테스}을 포함하는 S의 (임의의) 부분집합은 국지적 세계의 양화 영역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즉, 그런 양화 영역을 갖는 세계는 없다. 그에 따르면, {소크라테스}의 있음은 소크라테스의 있음을 **요구한다**. 뒤따르는 자연스러운 질문은 ‘왜 그러한가?’이다. 즉, 우리가 코레이아에게 요구해야 하는 설명은, S의 임의의 부분집합 중 어떤 집합들이 국지적 세계의 양화 영역으로서의 자격을 갖는지에 대한 **원리적인** 설명이다. 이는 국지적 세계들의 분포에 관한 설명적 요구이다. 따라서 이는 국지적 양상성 그 자체에 대한 설명적 요구이기도 하다. 코레이아는 이러한 요구를 단순히 직관에 호소하여 해소하려 한다.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 없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단지 직관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 외의 다른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즉, 그는 국지적 세계의 분포(즉, 국지적 양상성)를 원초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지적 양상성 및 가능세계는 비-표준적인 개념인 만큼, 우리의 일상적 이해 안에서 잘 파악되는 개념이 아니다. 어떤 개념이 우리의 이해 안에서 잘 파악되지 않는다면, 그 개념을 설명하지 않은 채 원초적으로 두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코레이아의 양상주의는 설명해야만 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는 문제를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키트 파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코레이아의 양상주의를 비판한다:

14) 어떠 어떠한 세계가 있고, 어떠 어떠한 세계가 없고, 어떠 어떠한 사태는 모든 세계에서 성립하고, 어떠 어떠한 사태는 어떤 세계에서만 성립하고 등등.

[\emptyset]의 자기-동일성[혹은 있음]이 [$\{\emptyset\}$]의 자기-동일성[혹은 있음]을 함의하지 않음에도, 왜 [$\{\emptyset\}$]의 자기-동일성은 \emptyset 의 자기-동일성을 함의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럴듯한 유일한 설명은 본질 개념으로의 설명이다. [$\{\emptyset\}$]의 자기-동일성이 [\emptyset]의 자기-동일성을 함의한다는 것은, [\emptyset]의 자기-동일성이 [$\{\emptyset\}$]의 본질로부터 따라 나온다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⁵⁾ (Fine, 2007: pp.87-8)

파인의 비판은, 코레이아에게 부과되는 설명적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본질에 호소하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즉,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 없이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소크라테스}의 본성 안에 소크라테스의 있음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 없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소크라테스의 본성 안에 {소크라테스}의 있음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설명은 코레이아의 양상주의로 하여금 순환의 문제에 빠지게 한다: 본질을 국지적 양상성으로 설명했고, 국지적 양상성이 다시 본질로 설명된다면, 이 설명은 명백히 순환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레이아는 **본질 개념에 호소하지 않는 국지적 가능세계의 분포를 규제하는 원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본질에 호소하는 것 이외에, 위의 설명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코레이아는 그의 논문 초입부에서 다음과 같은 국지적 양상성에 대한 (비정식적인) 성격 규정을 제시한다:

... 소크라테스가 수라는 것은 **내재적**으로 불가능하다 ... [소크라테스의 수입] 사태는 성립할 수 없고, 이 불가능성은 그 **사태 자체 안에** 있는 것이다. 그 불가능성의 **근거(ground)**는 다른 어떤

15) ‘ \square ’는 원문에는 ‘공집합(null set)’으로, ‘ $\{\square\}$ ’는 ‘공집합의 단집합(singleton null set)’으로 표기되어있다. 눈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공집합 기호를 사용한다.

외부의 사태에 있지 않다 ... 국지적 불가능성은 내재적 불가능성이다.¹⁶⁾

이 대목에서, 코레이아는 국지적 필연성을 내재적 필연성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 그리고 내재적 필연성은 그 필연성의 근거가 관련 사태 자체 안에 (내재적으로) 있는 필연성을 말한다. 따라서 그는 국지적 필연성을 ‘그 필연성의 근거가 관련 사태 자체 안에 있는 필연성’ 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듯하다.¹⁷⁾

이러한 설명은 앞서 우리가 제시한 설명적 요구를 본질에 호소하지 않으면서 만족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코레이아에 따르면, ‘소크라테스의 {소크라테스}의 원소임’ 사태에는 그 필연성의 근거가 관련 사태 자체 안에 없는 것이고, ‘{소크라테스}의 소크라테스를 포함함’ 사태에는 그 필연성의 근거가 관련 사태 자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관련 필연성의 근거(ground)가 관련 사태 자체 안에 (내재적으로)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보기에 그 말은, {소크라테스}의 본성 안에 소크라테스를 포함함 속성이 있다는 말과 (사실상) 같아 보인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소크라테스}에 포함됨’ 사태의 경우 그 필연성의 근거가 사태 자체 안에 없다는 것은, 소크라테스의 본성 안에 {소크라테스}에 포함됨 속성이 없다는 것과 (거의) 동일한 말인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내재적 필연성이라는 개념은 코레이아의 국지적 양상성 개념을 양상주의를 구체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도구로 사용될 수 없다. 그 개념은 자체로 이미 본성 혹은 본질 개념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16) 강조는 필자들의 것임.

17) 비슷하게, 모바리드(Movarid, 2017)는 코레이아의 국지적 필연성을 ‘내재적인 이유(reason)때문에 필연적인 것’으로 정식화한다.

그렇다면 파인적인 의미의 본질과는 확연히 다른 개념을 통해서 국지적 양상성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는 그런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잘타가 양상주의를 구제하기 위해서 사용한 부호화(encoding) 개념으로 국지적 양상성을 설명해보자. 잘타에 따르면 대상에는 추상적 존재자(abstracta)와 구체적 존재자(concreta)가 있으며, 대상이 속성을 갖는 방식에는 예화(exemplification)와 부호화(encoding)가 있다. 여기서 부호화는 추상적 존재자가 속성을 갖는 방식인데, 어떤(추상적)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개념을 그 대상은 부호화한다.¹⁸⁾ 예를 들어 설록 흠즈라는 추상적 대상은 ‘런던에 거주함’이라는 속성을 부호화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록 흠즈에 대해서 갖는 개념에 ‘런던에 거주함’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록 흠즈는 ‘런던에 거주함’이라는 속성을 예화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추상적 존재자는 런던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에 거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잘타는 추상적 대상의 경우 본질적 속성은 그 대상이 부호화하는 속성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설록 흠즈의 본질적 속성 가운데 하나는 ‘탐정임’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록 흠즈에 대해서 갖는 개념 안에 ‘탐정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잘타의 ‘부호화’라는 개념에는 파인적인 본질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든 연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부호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국지적 양상성을 정의하고 그렇게 정의된 국지적 양상성 개념을 통해서 본질을 정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코레이아가 원하는 대로 파인의 반례로부터 양상주의를 구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일견 이런 시도는 어느 정도는 흥미롭다. 왜냐하면 소크라

18) 잘타에 따르면, 추상적 대상이 속성을 예화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모든 추상적 존재자들은 ‘추상적임’이라는 속성을 예화한다.

테스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개념에 어떤 종류의 집합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소크라테스의 단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개념에는 명백히 소크라테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비대칭성이 코레이아에게 필요한 국지적 가능세계의 분포와 관련된 비대칭성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이런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그러나 극히 희박하다. 왜냐하면 ‘부호화’ 라는 개념이 소크라테스와 같은 구체적 대상에 적용되었을 경우 그것이 어떤 종류의 형이상학적 양상성 개념, 또는 소위 de re 양상성을 정식화해주는 개념이라고 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설령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개념에 어떤 종류의 집합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소크라테스의 단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개념에 소크라테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실이 소크라테스와 관련된 de re 양상성에 어떤 함축을 갖는지는 알기 어렵다. 잘타가 부호화를 본질 개념을 정의할 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런 정의를 추상적 대상에 국한해서 적용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코레이아는 구체적 대상에 대해서(도) 그의 국지적 양상성 개념을 사용하는 본질 개념을 적용하기를 원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코레이아의 양상주의가 다음의 트릴레마에 직면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국지적 양상성을 원초적으로 두는 경우, 그는 설명해야만 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에 봉착한다.¹⁹⁾ 다음으로 그가 국지적 양상성을 원초적으로 두지 않고 설명하려 할 경우, 그 설명이 본질, 또는 본질과 매

19) 어떤 의미에서는 국지적 양상성을 원초적으로 두는 것 자체가 원초적 본질을 도입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코레이아가 국지적 양상성을 원초적으로 둔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의 이론은 파인의 이론에 너무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 유사한 어떤 것에 호소하게 된다면 순환성 문제를 불러오거나 아니면 원초적 본질을 도입하게 되는 문제를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그가 국지적 양상성을 본질 이외의 어떤 다른 것에 호소해서 설명하려고 할 경우 그의 이론은 본질 또는 형이상학적 양상성과는 별로 관계없는 ‘양상주의’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이 트릴레마의 어떤 뿔을 잡든, 그의 양상주의는 파인 입장에서는 별로 두려워할 것이 없는 입장이 된다.

이제 우리는 코레이아의 이론에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 즉 파인의 그림과 너무 유사해지거나 아니면 파인의 이론의 주제, 즉 형이상학적 본질과는 다른 어떤 것에 관한 이론이 되는 문제가 불가능한 가능성 전략을 취하는 또 다른 후기-파인 양상주의자인 브로가드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사실 보다 나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우리는 3절에서 브로가드의 이론을 소개한 후 4절에서 그녀의 이론이 불가능한 가능성 전략을 취하는 이론으로서 왜 똑 같은 문제를 갖는지 설명할 것이다.

3. 베릿 브로가드의 양상주의

브로가드의 본질 정의는 다음과 같다.

BM: 속성 \emptyset 는 x 에 본질적이다. iff (i) 필연적으로, 만약 x 가 존재한다면, x 는 \emptyset 이다. (ii) 만약 어떤 것도 \emptyset 를 갖지 않았더라면, x 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SM에 반사실적 조건문 형태의 조건(ii)를 하나 더 추가한다. 그녀에 따르면, 이 조건이 파인의 반례들을 모두 막아준다. 따라서 반사실문 형태의 조건(ii)가 브로가드식 양상주의의 핵심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그녀가 루이스식 표준 반사실문 의미론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녀가 표준 반사실문 의미론 전부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오직 전건이 불가능한 모든 반사실문이 사소하게 참이 된다는 지점만을 거부한다. 따라서 전건이 가능한 반사실문의 경우, 그녀는 표준 반사실문 의미론을 따른다. 하지만 전건이 불가능한 반사실문의 경우, 그녀는 선행적 함의(a priori implication) 개념을 기반으로 새로운 의미론을 제시한다.

3.1. 브로가드의 반사실문 의미론

언급했다시피, 브로가드는 전건이 가능한 반사실적 조건문에 대해서는 루이스식 표준-의미론을 받아들인다. 표준적인 반사실적 조건문의 의미론은 다음과 같다.

SC: $P \square \rightarrow Q$ iff 임의의 P와 Q가 참인 가능세계에 대해서 그 세계보다 근접한 P와 $\sim Q$ 가 참인 가능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 사이의 근접 관계는 유사함 관계다. 그리고 유사함 관계는 부분적으로 맥락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브로가드는 ‘근접한’ 대신 맥락 하에서 ‘유관하게 유사한’ 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반사실문을 생각해 보면 분명해진다.

만약 내가 적어도 6피트만큼 컸다면 나는 정확히 6피트의 키를 가졌을 것이다.

직관적으로 이 반사실적 조건문은 거짓이지만 만약 우리가 **말 그대**

로 SC를 적용할 경우 이 문장은 참이 된다. 내가 정확히 6피트의 키를 가진 세계는 (내가 현실세계에서 6피트보다 작다는 가정하에) 내가 6피트보다 큰 임의의 가능세계보다 현실세계에 더 근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이런 문장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6피트 1인치인 세계와 내가 6피트 2인치인 세계는 동일한 정도로 **유관하게** 현실세계에 유사하다. 따라서 우리가 ‘근접함’을 문맥 의존적인 것으로 이해할 경우 우리는 위의 문장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거짓으로 만들 수 있다. 브로가드는 이런 아이디어를 보다 명시적으로 반사실적 조건문의 의미론에 집어넣기를 원하며 다음을 자신이 선호하는 정식화로 제시한다.

BC: $P \square \rightarrow Q$ iff P가 참인 모든 최근접, 즉 가장 유관하게 유사한 (가능 또는 불가능) 세계에서 Q가 참이다. (브로가드의 이론을 종합해서 다소간 변형을 가한 정식화임.)

BC에서 바로 드러나듯이, 브로가드의 의미론에는 표준적인 의미론과 다른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 있다. 그것은 그녀가 종종 전건이 불가능한 반사실적 조건문이 사소하지 않게 참 또는 거짓이라고 생각하며, 이 사실을 자신의 정식화에 반영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신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신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가 사소하지 않은 방식으로 참이라고 생각하는데, 표준적인 의미론은 이런 우리의 직관을 포착하지 못한다. 브로가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BC가 전건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 전건이 고려합직환(entertainable) 불가능성을 표현할 경우, 사소하지 않은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그녀에 따르면 전건이 불가능한

반사실문(반가능문)의 경우, ‘ $P \Box \rightarrow Q$ ’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IPC: $P \Box \rightarrow Q$ iff P가 참인 모든 최근접 불가능세계에서 Q가 참이다.

IPC와 SC는 어떻게 서로 다른가? 첫째로, SC가 가능세계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면, IPC는 불가능세계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 둘째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IPC에서의 근접 관계는 SC에서의 근접 관계와 다르다. 따라서 이 두 지점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그녀에 따르면 불가능세계는 최대적이며(maximal) 연역적으로 닫히지 않은(not-deductively closed) 문장들의 집합이다.²⁰⁾ 불가능세계는 연역적으로 닫히지 않은 문장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어떤 불가능세계가 문장 $P \& \sim P$ 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P \& \sim P$ 로부터 귀결되는 문장들(즉, 임의의 문장)이 그 세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IPC의 근접 관계는 SC의 그것과 무엇이 다른가? 앞서 SC에서는 ‘맥락’이 근접성 관계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었다. 브로가드에 따르면 IPC의 경우, 최근접 불가능세계를 결정하는데 있어 또 다른 기준이 추가된다. 그녀가 제시하는 다음의 두 불가능세계를 고려해보면 그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고전 논리학의 참을 전제하고 있다)

20) (i) 어떤 집합 S가 최대적(maximal)이다 iff 임의의 문장 P에 대해, P 혹은 $\sim P$ 가 (혹은 모두가) S의 원소다. (ii) 어떤 집합 S가 연역적으로 닫히지 않았다. iff S 안의 문장들로부터 귀결되는 모든 문장이 S의 원소인 것은 아니다. 즉, S 안의 문장들로부터 귀결되는 어떤 문장은 S의 원소가 아니다.

W_1	W_2
초일관 논리는 옳다.	초일관 논리는 옳다.
Ex falso quodlibet ²¹⁾ 은 타당하다. Ex falso quodlibet은 타당하지 않다.	

이 두 세계 중 어느 세계가 현실 세계에 더 근접한 세계인가? 고전 논리가 참인 현실 세계에서 EFQ는 타당하다. 따라서 현실 세계와 가장 근접한 세계는 W_1 이다. 그러므로, 다음의 반사실문이 참이 된다: ‘만약 초일관적 논리학이 옳았다라면, EFQ는 여전히 타당했을 것이다’. 하지만 직관적으로, 초일관 논리가 옳았다라면, EFQ는 타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브로가드는 최근접 관계를 결정하는 또 다른 기준을 추가한다:

C: 세계 안의 문장들 사이에 더 많은 선행적 함의 관계가 성립하는 세계가, 기초 세계(the base world)에 더 근접한 세계다.²²⁾

여기서의 핵심은 선행적 함의 관계다. 그러므로 선행성과 선행적 함의 개념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브로가드는 선행성 개념을 원초적으로 둔다. 따라서 그녀는 선행성 개념을 설명하지 않는다. 하지만 몇 가지 선행성 개념의 특징을 제시한다: (i) 선행성 개념은 고도의 맥락-민감성을 가진다. 하나의 문장은 어떤 이에겐 선행적이고 다른 이에겐 선행적이지 않을 수

21) 모순으로부터 임의의 문장이 도출 가능하다는 고전 논리의 원리. 이하에서 ‘EFQ’로 표기하겠다.

22)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첨언하자면, 브로가드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선행적 함의 관계가 세계의 유사성 관계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다. 선행적 함의 관계가 일반적인 사실들(역사적, 법칙적 사실들)의 유사성과 **함께** 종합적으로 유사성 관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있다. 가령, 천문학자 르베리에는 ‘해왕성’이란 표현을 천왕성의 궤도를 도는 임의의 행성에 대한 이름으로 사용한다고 해보자. 이랬을 때, ‘어떤 행성이 천왕성의 궤도를 돈다면, 그것은 해왕성이다’는 그에게 선행적이다. 반면 르베리에의 부인은 ‘해왕성’이란 표현을 자신의 남편이 연구하는 행성에 대한 이름으로 사용한다고 해보자. 이랬을 때, 르베리에에게 선행적이었던 조건문은 르베리에의 부인에게는 선행적이지 않다. (ii) 논리적 참은 선행적이지 않다.

브로가드가 제시하는 선행적 함의관계는 다음과 같다:

AI: c맥락에 있는 어떤 발화자 s에 대해, P는 Q를 선행적으로 함의한다. iff c맥락에 있는 s에 대해, Q는 P에 대한 선행적 귀결이다.

AI는 그다지 정보적이지 못하다. AI의 우편은, 선행적 ‘함의’ 관계를 그 관계의 역인 선행적 ‘귀결’ 관계로 바꿔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브로가드는 AI 이상의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는 ‘발화자s에게 P는 Q를 선행적으로 함의한다’를 다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듯하다: s는 P로부터 Q를 선행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선행적 추론을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추론이라고 했을 때, 이는 s가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P로부터 Q를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s에 대해 P는 Q를 선행적으로 함의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로 여기겠다.²³⁾

23) 이 정식화는, 차머스의 ‘선행적 함축’ 개념의 정식화와 거의 일치한다. 차머스의 정식화를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브로가드가 차머스의 인식적 이차원주의의 선행성 개념의 몇몇 특징들을 명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선행적 함의 개념 사용들은 차머스의 선행적 함축 개념에 거의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그녀가 자신의 반가능적 조건문 설명을

이제 다시 문제의 사례로 돌아가 보자.

W_1	W_2
초일관 논리는 옳다.	초일관 논리는 옳다.
EFQ는 타당하다.	EFQ는 타당하지 않다.

정상적인 맥락에 있고 ‘초일관 논리’ 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발화자 s 는 ‘초일관 논리’ 라는 표현을 EFQ가 타당하지 않은 논리체계의 이름으로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그런 s 는 ‘초일관 논리는 옳다’ 로부터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EFQ는 타당하지 않다’ 를 추론해낼 수 있다. 따라서 그런 s 에 대해, ‘초일관 논리는 옳다’ 는 ‘EFQ가 타당하지 않다’ 를 선행적으로 함의한다. 따라서 (C)에 따르면, W_2 가 W_1 보다 현실세계에 더 근접한 세계다. 그러므로, ‘만약 초일관 논리가 옳았다면, EFQ는 타당했을 것이다’ 는 올바르게 거짓으로 판명된다.

3.2. 브로가드식 본질 개념과 인식적/맥락적 본질

브로가드의 본질 정의는 다음과 같았었다:

BM: 속성은 x 에 본질적이다. iff (i) 필연적으로, 만약 x 가 존재한다면, x 는 이다. (ii) 만약 어떤 것도 를 갖지 않았더라면, x 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BM이 파인의 반례들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지 살펴보자. 파인이 제시하는 반례 속성들이 (ii)를 만족하지 않는다면, BM은 성

‘이차원주의적 설명’ 이라 부르기도 한다는 점에서도, 그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공적일 것이다. 가장 강력한 반례라고 여겨지는 *SINGLETON*으로 확인해보자. “만약 어떤 것도 {소크라테스}의 원소임 속성을 갖지 않았더라면, 소크라테스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조건문이 거짓인 경우에만 BM은 성공적이다.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반사실적 조건문을 반가능문으로 해석할 것인지이다. 어떤 것도 {소크라테스}의 원소임이라는 속성을 갖지 않는 세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선 우리는 이런 세계를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 가능 세계로 이해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당연히 어느 대상도 ‘{소크라테스}의 원소임’이라는 속성을 갖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해석될 경우 위의 조건문은 자동적으로 참이 된다. 이럴 경우 BM은 사소하게 파인의 반례를 극복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도 ‘{소크라테스}의 원소임’이라는 속성을 갖지 않는 세계를 불가능 세계, 즉 집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만 그가 그런 속성을 갖지 않게 되는 세계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는 브로가드의 이론이 갖는 추가적인 맥락 의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전건이 참인 세계를 불가능 세계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맥락에서 소크라테스가 존재한다는 배경 지식이 맥락에 의해서 고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양상주의가 애초에 출발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맥락을 고려해 반사실문의 전건을 이해해야 한다. 이제 위의 조건문을 반가능문으로 전제한 후에 다음의 두 세계를 비교해보자.

W_1	W_2
어떤 것도 {소크라테스}의 원소가 아니다.	어떤 것도 {소크라테스}의 원소가 아니다.
소크라테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소크라테스는 존재한다.

이제 브로가드가 원했던 대로 W_2 가 최근접 세계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것, 따라서 어떤 것도 {소크라테스}의 원소가 아니게 되는 것과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 것 사이에는 어떤 선험적 함축 관계도 없고, 현실 세계 안에서 소크라테스가 존재하므로 W_2 가 W_1 보다 더 근접한 세계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브로가드의 양상주의가 성공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다. 우선 브로가드가 정의하는 본질이 정말 파인과 고전적 양상주의자들이 논의하고 있는 본질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이런 의심은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최소한 두 가지 방식으로 암시되었다. 우선, 위에서 드러났듯이, 브로가드식의 본질 개념은 맥락 의존성을 갖는 반사실적 조건문을 통해서 정의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맥락 의존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본질을 ‘맥락적 본질’이라 부르자. 이런 맥락적 본질이 SM의 지지자들과 파인이 **공통으로** 포착하고자 하는 본질 개념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음으로 브로가드의 본질 개념은 그것이 의존하고 있는 반가능적 조건문의 의미론이 선험적 함축이라는 인식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파인과 SM의 지지자들이 **공통으로** 논의하고 있는 본질인지 분명하지 않다. 선험적 함축이라는 것이 결국 인식 주체의 인식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념에 의해서 정의된 본질도 마찬가지로 인식 주체의 인식 상태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런 본질을 ‘인식적 본질’이라 부르자. 이러한 인

식적 본질은, SM 및 파인이 논의하고 있는 형이상학적 본질과는 상당히 다른 개념의 본질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우리가 위에서 검토한 잘타의 부호화가 우리의 개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브로가드의 이론이 갖는 문제들(특히 첫째 문제)은 다음의 데이빗 루이스의 언급을 연상시킨다.

... 상대적 관계의 모호성-따라서 본질과 de re 양상성의 모호성은 화용론적 압력에 지배를 받고, 각기 다른 맥락에서 각각 다르게 해소된다 ... 충실한 본질주의자는 아마 나를 본질주의자의 옷을 입은 파인적 회의주의자이자, 거짓 친구라 여길 것이다.(Lewis, 1983b, p.42)

루이스는 이 대목에서, 자신이 진정한 본질주의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의 본질 개념이 맥락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루이스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동일한 이유에서, 브로가드 또한 자신은 진정한 본질주의자가 아니라고 고백해야만 할 것이다.

물론 이 대목에서 브로가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고전적 양상주의자들의 정신을 파인의 반례로부터 구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본질 개념을 ‘새로운’ 양상주의를 통해서 분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²⁴⁾ 그러나 브로가드의 의도가 그런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이론이 고전적인 양상주의를 원래의 정신을 살리면서 파인의 반례에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그의 시도를 이렇게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시도가 과연

24) 이 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해 준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성공적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우선,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브로가드의 이론은 ‘새로운’ 양상주의로서도 성공적일 수 없으며, 코레이아가 갖는 (트릴레마) 문제를 그대로 답습한다. 뿐만 아니라 브로가드의 입장은 그것의 옹호에 고전적 양상주의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한 입장이다. 고전적 양상주의가 갖는 매력은 ‘본질’이라는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개념을 표준적인 ‘테 레 양상성’이라는 우리가 명확한 이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개념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대한 손상 없이 환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전적 양상주의의 경우 그 분석이 파인적인 반례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면 **자동적으로** 파인의 이론보다 선호될 수 있다. 그러나 브로가드의 이론은 고전적 양상주의가 갖는 이런 장점을 갖지 못한다. 즉, 설령 브로가드의 이론이 파인류의 반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그의 이론이 **자동적으로** 파인의 이론보다 선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브로가드는 객관적 본질 개념을 포기하는 것이 원초적 본질 개념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브로가드의 논변은 자체로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이제 우리는 브로가드의 이론이 코레이아의 이론과 공유하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BM에는 브로가드의 표준적이지 않은 방식의 반사실적 조건문에 호소하는 부분, 즉 조건(ii)와 표준적인 방식으로 이해된 양상적 조건, 즉 SM에 해당되는 (i)이 모두 들어 있다. 왜 (i)이 필요한가? 그것은 (i)이 없을 경우 BM은 형이상학적인 의미의 본질에 대한 분석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대상도 의사가 아니라면, 즉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참이다. 의사의 도움 없이 내가 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BM에 조건 (i)이 없었

다면 이로부터 나는 본질적으로 의사라는 결론이 나온다. BM의 조건 (i)은 이런 원치 않은 결론을 차단해 준다. 내가 존재하지만 의사는 아닌 가능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건 (i)은 BM을 형이상학적인 본질에 대한 분석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약한 조건이다. 다음의 사례를 보자: 수학자 앤드류 와일즈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해냈고, 국제 수학 연맹(IMU)은 이에 대한 공로로 기념 은판을 제작해 그에게 수여했다. 이제, 만약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증명가능하지 않았더라면, 와일즈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하지 못했을 것이고, 따라서 그 기념 은판은 제작되(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 기념 은판을 ‘a’ 라 하고,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증명가능함’ 이라는 속성을 ‘F’ 라 하자. F는 보편적으로 필연적 속성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a가 존재한다면, a는 F를 갖는다.(조건 (i) 만족) 또한, 앞서 보았듯이, 만약 어떤 것도 속성 F를 갖지 않았더라면, a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조건 (ii) 만족) 결국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증명가능함’ 이라는 속성은, 브로가드의 이론에 따르면, 그 기념 은판의 본질적인 속성이 된다. 하지만 이는 반직관적인 귀결이다.²⁵⁾

25) 누군가는 기념은판이 페르마 정리 증명에 대한 공로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페르마 정리의 증명 가능성과 기념 은판 사이에는 어떤 종류의 본질적 관계가 성립한다고 말할지 모른다. 나아가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페르마 정리가 증명가능함’ 이라는 속성이 그 기념 은판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니라고 반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예를 들어, 철수의 여자친구가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해서 철수에게 초콜릿을 만들어 주었다고 하자. 이제 그 초콜릿을 a라고 부르자. a의 본질적 속성 가운데 그것이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 포함될 수 있을까? 직관적으로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만약 철수의 여자친구가 어버이날 부모님께 선물하기 위해서 철수에게 선물했던 초콜릿을 만들었던 바로 그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동일한 방식으로 초콜릿을 만들었어도 a는 존재했을 것이다. 따라서 “철수가 받은 발렌타인데이 선물은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한 것이다”는 기껏해야 de dicto적으로 필연적일 수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와일즈가 페

이 반례는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인가? 그것은 SM이 파인의 반례에 취약하게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즉 표준적인 양상성을 사용하는 조건 (i)이 너무 약한 조건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브로가드가 불가능한 가능성 전략가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건 (i)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이 불가능한 가능성 전략가로서의 브로가드가 코레이아의 문제를 계승하는 지점이다. 브로가드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워 보이는 방법이 바로 코레이아의 총체적 양상성과 국지적 양상성의 구분과 유사한 구분을 도입하는 것이다. 기념 은판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증명가능함’이라는 속성을 결여하는 총체적 가능세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기념 은판이 그 속성을 결여하는 국지적 가능세계는 존재하기 때문이다(예컨대 수가 없지만 기념 은판은 있는 국지적 세계). 그러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경우 우리가 앞에서 논의한 트릴레마는 다시 나타난다.

4. 결론: 교훈

지금까지 불가능한 가능성 전략을 사용해서 파인의 공격에 대처하려는 두 명의 양상주의자들의 이론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모두 비-표준적 양상 개념을 통해 어떤 종류의 불가능성을 가능성처럼 취급하는 전략을 취한다. 우리가 위에서 제시한 논변이 옳다면, 이들의 전략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기본적으로 이 전략은 두 개의 (양상주의자 입장에서) 불만족스런 양 극단 사이를 오갈 수밖에 없는 전략이라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이다. 한편으로 이들의 전략은 원초적 본질을 도입하는 파인의 이론과 이 점에서 특

르마의 마지막 정리 증명을 기념해 받은 은판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증명을 기념한 것이다” 도 기껏해야 de dicto적으로 필연적일 수 있을 뿐이다.

별히 다른 이론이라고 보기 힘들어 질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포착하고자 하는 본질이 양상주의자와 파인의 논쟁의 주제가 되는 형이상학적 본질과는 너무 다른 개념이 될 위험성을 갖게 된다. 우리의 생각에 코레이아의 이론은 전자의 위험에 매우 심하게 노출되어 있는 이론이며, 브로가드의 이론은 후자의 위험에 매우 심하게 노출되어 있는 이론이다. 이는 파인의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한 가능성 전략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굳이 반대할 필요도 없는 전략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Brogaard, B. and Salerno, J. (2013), "Remarks on Counterpossibles", *Synthese*, 190, pp. 639-660.
- Chalmers, D. J. (2002), "Does Conceivability Entail Possibility?", in T. Gendler, et al. (eds.), *Conceivability and Possibility*, Clarendon: Oxford University Press, pp. 145-200.
- Chalmers, D. J. and Jackson, F. (2001), "Conceptual Analysis and Reductive Explanation", *Philosophical Review*, 110, pp. 315-361.
- Correia, F. (2007), "(Finean) Essence and (Prioriean) Modality", *Dialectica*, 61, pp. 63-84.
- Della Rocca, M. (1996), "Essentialism: Parts I", *Philosophical Books* 37, pp. 1-13.
- Della Rocca, M. (1996), "Essentialism: Parts II", *Philosophical Books*, 37, pp. 81-89.
- Denby, D. (2014), "Essence and Intrinsicity", in R. Francescotti (eds.), *Companion to Intrinsic Properties*, Berlin, Boston: De Gruyter, pp. 87-109.
- Fine, K. (1994), "Essence and Modality", *Philosophical Perspectives*, 8, pp. 1-16.
- Gorman, M. (2005), "The Essential and the Accidental", *Ratio*, 18, pp. 276-289.
- Morvarid, H. (2017), "Finean Essence, Local Necessity, and Pure Logical Properties", *Synthese*, doi.org/10.1007/s11229-017-1441-9. Published online: 23

May 2017

- Lewis, D. (1973), *Counterfactuals*, Oxford: Blackwell.
- Lewis, D. (1983a), "New Work for a Theory of Universals",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61, pp. 343-377.
- Lewis, D. (1983b), *Philosophical Papers Volume 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ewis, D. (1986), *On the Plurality of Worlds*, Oxford: Blackwell.
- Schaffer, J. (2004), "Two Conceptions of Sparse Properties", *Pacific Philosophical Quarterly*, 85, pp. 92-102.
- Wildman, N. (2013), "Modality, Sparsity, and Essence", *Philosophical Quarterly*, 63, pp. 760-782.
- Wildman, N. (2016), "How (not) to be a Modalist about Essence", in M. Jago (eds.), *Reality Making*, Oxford, pp. 177-196.
- Zalta, E. N. (2006), "Essence and Modality", *Mind*, 115, pp. 659-694.

중앙대학교 철학과

Department of Philosophy, Chung-Ang University

jaeho.jaeho@gmail.com, wemmaw5678@naver.com

Can Impossible Possibility Save Modalism?

Jaeho Lee·Minseok Kim

Since Kit Fine's influential paper, *Essence and Modality* (1994), many philosophers have doubted the prospects of modalism, according to which we can analyze the concept of essence with that of *de re* modality. However, some philosophers have tried to save modalism against Fine's counterexamples seriously. In this paper, we examine two such attempts which appeal to some kind of 'impossible possibilities.' We argue that such attempts have strong tendency to end in either a metaphysical picture which is very similar to Fine's or a concept of essence which is quite different from Fine's. For this reason, we claim that Fine has no reason to worry about such attempts.

Key Words: Essence, Modality, Modalism, Kit Fine, Impossible possibility.